



KWC 2019 Chilean Wine

칠레는 코리아와인캘리지에 꾸준히 참여율이 높은 국가이다. 최근 호주나 이탈리아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칠레 와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심사위원들의 평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칠레 와인의 퀄리티 향상'이다. 이렇듯 한층 나은 퀄리티로 KWC 2019에서 수상한 칠레 와인들을 만나보자. 칠레는 한 와이너리가 여러 지역에 아우르는 경우가 많아 지역 소개를 별도로 하고, 올해 수상을 한 와이너리 12곳을 소개한다.

글 강은영 사진 Wikipedia

지속적인 퀄리티 향상

해마다 KWC를 통해 칠레 와인의 스타일과 질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칠레 와인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심사위원들이 칠레 와인의 퀄리티가 상향평준화되었음을 언급했다.

칠레 까르메네르에 주목

까르메네르는 칠레 생산자들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품종이다. 올해 KWC에서는 이 까르메네르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농밀한 풍미에 기분 좋은 산미까지 오히려 기존 칠레 레드 와인과는 다른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었다.

개성 있는 레드 블렌드

많은 심사위원들이 KWC 2019의 가장 인상깊은 심사 플레이트로 칠레 블렌드 와인 카테고리 꼽았다. 잔을 비우기 아까울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와인이 많았다는 평가와 함께 개성있는 스타일이라는 평이 있었다.

🇨🇱 Elqui Valley 엘끼 밸리

칠레 최북단의 와인 산지다. 칠레 북부는 아타카마 사막이 펼쳐져 있지만, 엘끼강의 신선한 기운이 사막의 무더운 기후를 완화시켜준다. 더불어 해발 2,000m에 이르는 고지대에 포도밭들이 자리 잡고 있어, 오히려 칠레의 어느 지역보다 서늘한 기후에 맞는 품종들이 잘 자라는 편이다. 특히 시라나 소비뇽 블랑 같은 품종으로 질 좋은 와인을 선보인다. 최근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르메네르, 사르도네와 피노 누아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연 강수량은 70mm로 매우 건조하다.

🇨🇱 Limari Valley 리마리 밸리

엘끼밸리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자점에 자리하고 있다. 적도에 근접한 위치로 무덥고 건조한 지역이지만, 리마리 밸리가 형성한 해안 절벽으로 인해 인근 내륙 지역에 비해 서늘하고 녹지가 많다. 또 여름 아침에는 해안에서 형성된 안개가 밀려와 포도밭에 신선한 기운과 습도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리마리 밸리는 신선한 산도와 미네랄의 특징을 보이는 사르도네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내륙에서는 대부분 레드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이중 시라가 강세를 보인다.

🇨🇱 Choapa Valley 초아파 밸리

리마리 밸리 바로 남쪽에 자리한, 잘 알려지지 않은 와인 산지다. 서늘하고 건조하다는 점에서 리마리나 엘끼 밸리와 비슷한 기후를 보인다.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 자리 잡은 포도밭들은 태평양의 서늘한 훔볼트 해류의 영향까지 받아 북부 지역임에도 기후는 서늘한 편이다. 전통적으로는 빠스코 브랜드에 쓰이는 화이트 품종의 재배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와인 산지로 개발되면서 시라, 까베르네 소비뇽 등의 레드 품종도 재배되고 있다.



🇨🇱 Aconcagua Valley 아콩카구아 밸리

칠레에서 와인 생산 전통이 가장 오래된 지역이다. 일례로 1870년 에라주리즈가 뻬케우에서 프랑스 포도품종을 재배한 바 있다.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자점에 위치해 있으며 아콩카구아 강과 해안가의 신선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 섬세하고 우아한 레드 와인을 양조한다. 까베르네 소비뇽, 시라, 까르메네르가 주로 재배된다. 최근에는 소비뇽 블랑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유기농과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포도밭을 관리하는 와이너리들이 늘고 있다.

🇨🇱 Casablanca Valley 카사블랑카 밸리

1980년 중반 사르도네가 처음 식재되면서 칠레 와인산업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곳이 카사블랑카 밸리이다. 1982년 서늘한 지역을 찾고 있던 와인메이커 파블로 모란데가 처음으로 이곳에 2ha의 포도밭을 사들여 재배를 시작했다. 카사블랑카 밸리가 유독 서늘한 이유는 태평양 해안에서 30km 거리에 있어 훔볼트 해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오후에 해안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포도밭의 열기를 식혀준다. 사르도네, 소비뇽 블랑 등의 화이트 품종과 피노 누아와 메를로가 질 좋은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 San Antonio Valley 산 안토니오 밸리

카사블랑카 밸리 남쪽, 해안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포도밭은 주로 해안에서 4km 내륙 쪽에 완만하게 발달한 구릉에 자리 잡는다. 기온이 서늘해 포도가 늦게 익는 편이다. 소비뇽 블랑, 피노 누아, 사르도네, 시라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상쾌하면서도 기분 좋은 미네랄이 느껴지는 화이트 와인이 강세이다. 산 안토니오 밸리는 다시 레이다(Leyda), 로 아바르카(Lo Abarca), 로 사리오(Rosario)의 구지역과 말빌라(Malvilla), 까르떼게나(Cartegena), 르레오레오(Lleolleo) 등의 세부 지역으로 나뉜다.



Maipo Valley 마이포 밸리

칠레의 가장 전통적인 와인 산지이다. 19세기부터 이곳에는 프랑스 와인에 영감을 받은 와이너리들이 세워졌다. 전통적 명문 와이너리들이 거의 모두 이곳에 들어섰고 지금도 그들의 기반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입지는 산티아고에서 약 100km 남쪽, 안데스 산맥과 해안 산맥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토양은 바위와 자갈이 함께 섞여 있어 특히 까베르네 소비뇽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마이포 밸리는 칠레에서 가장 뛰어난 까베르네 소비뇽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밖에 메를로, 샤르도네, 까르메네르가 재배된다.

Cachapoal Valley 카차포알 밸리

산티아고에서 남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카차포알 밸리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레드와 약 70%를 차지한다. 기후는 지역별 차이가 심해 안데스 산맥의 찬 지대부터 라델호 주변의 가장 더운 지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대조적이다. 주된 품종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르메네르,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가 있다. 포도밭은 주로 안데스 산쪽에 분포되어 있다. 밤낮의 기온차가 무려 20도에 이르러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기에 적합하다.

Colchagua Valley 콜차구아 밸리

콜차구아 밸리는 오래 전부터 숙성력 좋은 레드 와인의 명산지로 명성이 높았던 곳이다. 카차포알 밸리에서 서남쪽으로 내려와 자리 잡고 있으며 꾸리코 밸리와 접경을 이룬다.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이 텅기리리카 강줄기를 따라 위치하고 기후는 카차포알보다 서늘하다. 대표적인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이다. 그 외 까르메네르, 시라로 좋은 와인을 선보이고 소량이지만 말베크도 생산된다. 최근에는 와이너리들이 해안가 쪽으로 포도밭을 확장하면서 소비뇽 블랑과 같은 신선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품종을 재배하는 추세이다.

Curico Valley 꾸리코 밸리

콜차구아 밸리 남쪽의 꾸리코 밸리는 동쪽의 해안산맥이 태평양의 영향을 막아 대륙성 기후를 띤다. 밤낮의 일교차가 몹시 큰 이곳에서는 섬세하고 풀바디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빛어진다. 와인 생산 역사가 오래된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포도재배 지역이 증가했고, 와인산업은 이 지역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까베르네 소비뇽과 소비뇽 블랑이 많이 재배되며, 이밖에 메를로와 샤르도네도 생산된다.

Maule Valley 마울레 밸리

센트럴 밸리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칠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와인산지만큼 다양한 때루아를 보인다. 마울레는 다시 3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안데스 산맥의 구릉에 위치한 북동지역, 마울레 강과 론코밀라(Loncomilla) 강을 아우르는 가장 넓은 면적의 중앙 지역, 그리고 해안가 가까이에 위치한 남서쪽 지역이다. 마울레 밸리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많이 재배되며, 울드바인에서 난 까리냥으로 특별한 와인을 빚기도 한다.

Itata Valley 이따따 밸리

460년 콘셉시온(Concepcion) 항구에 처음 포도나무가 들어온, 가장 유서 깊은 와인산지이다. 하지만 와인산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덥고 습한 여름과 매서운 겨울 추위 때문에 국제품종이 재배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이곳은 전통적인 품종들이 주로 재배되었고, 수령이 오래된 포도나무도 도처에서 발견된다. 최근에는 도전 정신이 강한 와인생산자들이 최신 기술을 도입, 국제 품종으로 질 좋은 와인을 빚기도 한다.

Bio Bio Valley 비오 비오 밸리

최근 칠레 생산자들이 신선한 스타일의 와인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와인 산지를 탐험하면서, 비오 비오 밸리에 실험적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비오 비오 밸리는 칠레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기후가 극단적이다. 비와 바람이 많고 기후변화도 큰 편이다. 20세기에도 이 지역은 모스카텔과 파이스가 주로 재배되었지만, 최근에는 좀 더 아로마틱한 화이트 품종과 피노 누아 같은 섬세한 와인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Malleco Valley 말레코 밸리

칠레 최남단의 와인산지이다. 말레코 밸리는 1995년 처음으로 샤르도네를 식재한 이래 매우 유망한 산지로 관심을 끌고 있다. 강우량은 연간 1300mm로 상당한 편이며, 토양은 충적토, 사토 등으로 되어있다. 이곳에서 나는 포도품종에는 소비뇽 블랑을 위시해 샤르도네, 피노 누아, 게뷔르츠트라미너 등이 있다.



Aresti Chile Wines
아레스티 칠레 와인즈

1951년 돈 빈센테 아레스티 아스타카는 꾸리코 밸리의 때루아를 알아보고, 이곳에 포도밭을 사들였다. 1987년에는 양조 기반 시설을 마련하여, 1990년 처음으로 '아레스티'라는 이름으로 와인을 생산했다. 이후로도 최첨단 와인 셀비 시설을 위한 투자는 지속했다. 1999년에 이르면 대규모 지하 저장고,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프렌치 오크 배럴 등을 구비하고 온도와 습도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설비들을 마련한다. 현재 3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오는 아레스티는 "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철학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Aresti Trisquel Gewurztraminer

Veramonte
베라몬테

1990년 어거스틴 후네우스(Augustin Huneeus)가 설립한 와이너리이다. 그는 60년대 콘차이토로의 CEO를 맡고, 1989년에는 나파 밸리에 쿼테사 에스테이트를 설립하는 등 이미 와인 비즈니스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왔다. 칠레 카사블랑카 밸리의 선선한 기후에 매료된 그는 이곳의 40ha의 포도밭으로 시작해 현재는 카사블랑카의 420ha와 콜차구아 밸리의 80ha를 비롯 마이포 밸리에도 포도밭을 확장하며 와이너리를 키워나갔다. 지속가능한 포도재배를 목표로 하는 이들은 유기농법으로 포도밭을 관리하며 섬세한 와인을 만들고 있다. 수입사 문도비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Veramonte Ritual Chardonnay

Vina El Principal
비나 엘 프린시팔

1998년 현 오너인 파트릭 발레테의 아버지는 사토 파비를 팔고 고향인 칠레로 돌아와 엘 프린시팔을 설립했다. 비나 산타 리타의 전 소유주인 폰텐 가문과 공동으로 설립한 이곳은 마이포 밸리의 남쪽, 산티아고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피르케라는 지역에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비나 엘 프린시팔은 이곳에서 메를로, 까르메네르, 까베르네 소비뇽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곳의 까베르네 소비뇽은 죽기 전에 꼭 마셔야 할 와인 100에 소개된 바 있다. 수입사 마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Gold El Principal Andetelmo
Gold El Principal Memorias
Silver El Principal Calicanto

Casas del Toqui

까자스 델 토키

1994년 프랑스 보르도의 와이너리인 샤토 라로즈 트랑토돈은 칠레의 또따우에 지역에서 전통을 고수하며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와이너리와 협력하여 까자스 델 토키를 설립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는 와인에 대한 열정이 컸던 코트(Court) 패밀리가 까자스 델 토키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라펠 밸리와 마이포 밸리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칠레 와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그들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와인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Casas del Toqui Court Rollan Extra Brut Blanc de Blancs
- Casas del Toqui Court Rollan Mater Carmenere
- Casas del Toqui Court Rollan Pater Cabernet Sauvignon
- Casas del Toqui El Toqui Limited Edition Carmenere
- Silver** Casas del Toqui Court Rollan Filius Blend de Blends
- Casas del Toqui El Toqui Limited Edition Syrah
- Casas del Toqui El Toqui Reserva Especial Sauvignon Blanc

Cono Sur

코노 수르

1993년 칠레의 콜차구아 밸리에 설립된 코노 수르는 '전통은 없어도 혁신은 있다'는 것을 모토로 세우고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와이너리이다. 특히 이들은 칠레 피노 누아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리슬링, 게뷔르츠트라미너 등 이 나라에서 흔치 않는 품종들을 도입했다. 현재는 칠레에서 2번째로 큰 유기농 생산자이자 이 나라에서 콘차이트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와인을 수출하는 생산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피노 누아 생산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비오 비오 밸리나 카사블랑카 밸리 등 서늘한 산지에서도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Cono Sur Single Vineyard Carmenere
- Silver** Cono Sur 20 Barrels Cabernet Sauvignon
- Silver** Cono Sur 20 Barrels Carmenere
- Silver** Cono Sur Ocio
- Silver** Cono Sur Single Vineyard Chardonnay
- Bronze** Cono Sur 20 Barrels Chardonnay
- Bronze** Cono Sur Single Vineyard Syrah

Sur Valles Wine Group

수르 발레스 와인 그룹

수르 발레스는 산티아고 아추라 라렌이 1961년 설립한 가족 경영 와인 그룹이다. 이들은 마이포 밸리, 카차포알 밸리, 콜차구아 밸리, 꾸리코 밸리, 마울레 밸리 등에 850ha가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 와인 생산 기술 시스템에도 아낌없이 투자하여, 1시간에 약 12,000명의 와인을 병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6,300개 이상의 오크 배럴과 다양한 사이즈의 발효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수르 발레스는 이곳에서 25가지의 다양한 품종으로 8개 레인지의 와인을 생산한다. 비나 레킨구아도 이들 그룹에 속해 있는 와이너리이다. 수입사 마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 Best Chile Red** Patagon Reserve Cabernet Sauvignon
- Silver** Patria Nueva Family Reserve Cabernet Sauvignon
- Patria Nueva Reserve Cabernet Sauvignon
- Santa Alba Family Reserve Cabernet Sauvignon
- Santa Alba Grand Reserve Syrah Cabernet Sauvignon
- Santa Alba Reserve Chardonnay

Santa Carolina

산타 캐롤리나

1875년 설립 후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칠레의 대표급 와이너리이다. 설립자 돈 루이스 캐레이 코타포스가 아내 도나 캐롤리나의 이름을 따 지은 와이너리로, 사랑을 담은 로맨틱한 와인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Wine Enthusias>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신세계 와이너리 후보로 올랐던 이들은, 2014년 마침내 '올해의 신세계 와이너리'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칠레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이들은 지속가능한 와인 생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수입사 롯데주류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Santa Carolina Reserva de Familia Carmenere
- Santa Carolina Reserva de Familia Cabernet Sauvignon
- Bronze** Santa Carolina Reserva Cabernet Sauvignon

Vina Ventisquero

비나 벤티스쿠에로

칠레 최대 와인 농수산물 회사인 아그로 수퍼(Agro Super)의 자회사로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2000년부터 와인을 생산했다. 이들은 수석 와인메이커 펠레페 토소(Felipe Tosso)의 가이드라인 아래 마이포 밸리에 처음 와이너리를 세우고 3년 후에는 카사블랑카 밸리와 아팔타 밸리로 영역을 넓혔다. 한편 벤티스쿠에로의 한 브랜드로 국내 시장에서도 잘 알려진 알리(Yali)가 있다. 와이너리 인근에 자주 날아드는 작은 새의 이름을 딴 알리는 친환경적인 와인을 추구한다. 수입사 알라: 레벡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Yali Limited Edition Carmenere
- Silver** Vina Ventisquero Root1 Carmenere
- Vina Ventisquero Root1 Sauvignon Blanc
- Yali Reserva Wetland Cabernet Sauvignon
- Bronze** Vina Ventisquero Root1 Cabernet Sauvignon
- Yali Three Lagoons Gran Reserva Carmenere

Vina La Rosa

비나 라 로사

비나 라 로사의 역사는 18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칠레 광산업을 지휘했던 사업가인 프란시스코 오싸 이 메르카도가 콜차구아 밸리에 매료되어 포도밭을 매입하면서 부터이다. 지금은 이즈마엘 오싸가 와이너리를 경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비나 라 로사는 지속가능한 와인 생산을 철학으로 콜차구아 밸리에 있는 600ha의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비나 라 로사 오싸는 KWC 2018에서 베스트 칠레 레드 와인을 수상하며 국내 시장에 이름을 알렸다. 수입사 마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La Rosa Carmenere
- Gold** La Rosa Cornellana Red Blend
- Gold** La Rosa Ossa



Lapostolle

라포스톨

1994년 프랑스 유명 와인 생산자 마르니에 라포스톨(Marnier Lapostolle) 가문과 칠레 라밧(Rabat) 가문의 합작으로 라포스톨은 탄생했다. 이들은 콜차구아 밸리에서도 최고급 와인 산지인 아팔타(Apata) 지역에 포도밭을 매입했고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 마셜 롤랑에게 컨설팅을 맡겼다. 또한 설립 당시부터 친환경 와인 생산을 지향하며 포도밭 관리에서 와인 생산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100% 유기농을 고집했다. 라포스톨의 대표 와인 플로 아팔타는 2008년 <Wine Spectator> 100대 와인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수입사 레벡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Lapostolle Cuvee Alexandre Cabernet Sauvignon

Vina Requingua

비나 레킨구아

1961년 설립된 비나 레킨구아는 초창기 꾸리코 밸리에 있는 50ha의 포도밭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꾸리코에서 콜차구아, 마울레 밸리에 1,055ha의 포도밭을 소유한 와이너리로 성장했다. 각각 다른 미세기후와 토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들 포도밭에는 그 특성에 맞추어 기베르네 소비뇽, 가르메네르, 메를로, 시라 등을 재배하고 있다. 한편 레킨구아는 지속가능한 와이너리 운영을 목표로 설비를 개선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수입사 아영FBC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Vina Requingua Toro de Piedra Gran Reserve Petit Verdot Cabernet Sauvignon
- Silver** Vina Requingua Toro de Piedra Gran Reserve Syrah Cabernet Sauvignon
- Silver** Vina Sur Andino Cigar Box Pinot Noir
- Bronze** Vina Requingua Toro de Piedra Gran Reserve Cabernet Sauvignon

Luis Felipe Edwards

루이스 펠리페 에드워드

칠레의 명망 있는 생산자 루이스 펠리페 에드워드(이하 LFE)는 KWC가 처음 시작한 2005년부터 이번 2019년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KWC에 참여하여 수많은 상을 거머쥐었다. 1976년에 설립된 LFE는 콜차구아 밸리에서 320ha의 포도밭을 가꾼 이래 현재는 레이다 밸리까지 포도밭을 확장시키며 와인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올해의 칠레 와인생산자'로 선정되어 다시 한 번 그 명성을 입증했다. 수입사 FL 코리아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Luis Felipe Edwards LFE900 Malbec
- Silver** Luis Felipe Edwards Marea Syrah